

# 18일 합당 등록... 25일부터 공천 심사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따라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통합민주당(가칭)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하는 등 총선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12일 양당은 당산동 대통합민주신당 당사에서 통합실무협상 1차 회의를 열고 통합의 실무 작업을 오는 16일까지 완료하고, 17일에는 양당의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합당 수입기구 합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18일 중앙선관위에 합당 등록을 하는 것과 동시에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9일부터 24일까지 18대 총선 후보자를 공모한 뒤 25일부터 심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실무협상단은 양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기로 하고 당헌·당규 분과, 정당정책 분과, 조직·총무 분과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양당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정확하게 합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며 "13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신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합당 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이 합당 절차와 공천 준비작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에 비



대통합민주신당 신계륜 사무총장이 12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통합실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합민주당 일정 확정, 총선체제 전환 가속화 공심위, 민주 3명·신당 2명·외부인사 7명으로

해 뒤쳐진 공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고 25일 전까지 지역별 공천심사를 마무리한 뒤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 후보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임명하는 외부인사 7명 외에 당내 인사는 민주당에서 3명, 신당에서 2명 등 5명을 임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이 이미 외부 인사 7명의 명단을 확정했고 당내 인사는 양당 대표가 지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심위 구성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또 통합민주당은 단수 후보 접수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의 1차 후보 발표 시기에 맞춰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천 전쟁'이 예상되는 호남지역 공천과 경선 실시 여부, 손학규 대표가 실력적으로 도입하려는 모바일 공천의 실행 문제 등이 변수가

### 통합민주당 총선 일정

날짜	내용
~2.16	통합 실무 작업 마무리
2.18	중앙선관위에 합당 등록 공천 심사위 구성 완료
2.19~24	총선 후보자 공모
2.25~	총선 후보 심사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2일 "(모바일 공천은) 동원경선이 되고 돈이 들어가게 돼 부패하기 쉽다. 자칫 그 돈을 써서 모바일 투표를 유도한 사건이 되면 당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장병완 "국정 경험 살려 지역 현안 풀겠다"

### 4·9 총선 현장



○장병완 광주 북갑 예비후보는 12일 "중산층과 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피력.

장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인들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일을 막고 30여년간 공직 생활에서 쌓아온 예산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광주에서 가장 낙후된 북갑 지역에 쏟아붓겠다"면서 지지를 당부.

### 오형근 "봉하마을 개발은 혈세 낭비"



○광주 북갑에 출사표를 던진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은 12일, 노무현 대통령 생가인 봉하마을을 개발하는데 수백억 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대해 "개발을 빙자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며 맹비난.

오 예비후보는 "봉하마을은 생태체험장은커녕, 전직 대통령에게 세금을 퍼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만류하는 것이 물러나는 정권의 마지막 예의일 것"이라고 지적.

### 김승남 "승례문 화재 철저히 문책해야"



○김승남 광산구 예비후보가 "승례문 화재는 인기에 영합하는 전시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김 예비후보는 12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무리하게 승례문 개방을 밀어붙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개방된 문화재 관리를 부실하게 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

### 김화진, 노인복지관 특강 등 민심잡기



○김화진 남구 예비후보는 12일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특강하는 등 지역민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늘리면서 얼굴 알리기에 총력.

김 후보는 이날 남구노인복지회관을 방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즐겁고 건강한 삶,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 하면서 민심 잡기에 주력.

### 서정성 "토론투는 교육정책은 혼란 초래"



○서정성 남구 예비후보는 12일 "새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

서 후보는 이날 문성고 졸업식에 참석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을 격려한 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 논평을 내고 "대학입시 자율화, 학교별 학생 성적 공개 등 '자율'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학력 학벌 사회를 조장하고 우리 교육의 혼란만 초래한다"고 비판.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염동연 의원 "불출마"

### '쇄신' 파급 효과 주목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 의원(광주 서구갑)이 12일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염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으로서의 최초로 향후 전개될 인적 쇄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초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각오하면서까지 정통민주세력 통합과 제3기 개혁정권 창출의 깃발을 들고 우리당을 탈당했다"며 "대선에 실패하면 총선 때 지역구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통합 '투톱' 孫-朴 체제 순항할까

〈학규〉 〈상천〉

### 역할분담 주력 팬 시너지 기대

### '모바일 공천'엔 벌써부터 삐걱

통합민주당(가칭)의 손학규·박상천 투톱 체제가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이들이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협조 속에 통합당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두 대표는 지역보다는 기능면에서의 역할 분담에 주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실력력을 얻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손학규 - 수도권' '박상천 - 호남'이라는 공식으로 총선에 임할 경우 전통적 지지층 복원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박 대표를 호남을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보기 힘든 만큼 지역기반으로 역할분담을 거론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신당 핵심당직자는 12일 "양당 대표가 지역에 따라 단순하게 역할 분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통

적 지지층 결집과 전국정당으로 당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대표가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있다. 손 대표가 인적 쇄신과 당면도 일신을 주창하고 나섰지만 어떤 의미에서 박 대표 스스로 쇄신의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통합 선언 하루 만에 박상천 대표의 모바일 공천 반대 입장 표시로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모바일 투표는 동원경선이 되어 돈이 들어가고 부패하게 될 것"이라며 "돈을 써서 모바일 투표를 유도한 것이 사건화되면 당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대표의 주장은 손 대표가 공천 쇄신과 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내린 결단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당내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서갑원, 순천 발전 4가지 약속 발표



○서갑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2일 "지역 사회의 실질적 대통합과 총선 승리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며 "본격적인 표발 다지기에 돌입.

서 의원은 이날 "순천을 ▲광양만권 통합 중심 도시 ▲교육·문화·환경의 도시 ▲청년 실업이 없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소외받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도시 등으로 가꾸겠다"는 4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4년 간의 국회 의정활동을 발판으로 공약을 지켜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 박주선, 동구 활성화 대책 논의



○박주선 광주 동구 예비후보가 12일 동구청과 동구의회를 잇달아 방문, 유태명 청장과 조영복 의장 등 집행부 간부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 공동화 극복'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을 논의.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도청 일대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와 의회에 감사 드린다"며 "국회에 진출하면 아시아문화수도 조성사업을 비롯 동구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 강운태, '국회의원의 역할' 여론조사 발표



○강운태 남구 예비후보는 12일 "남구민들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및 예산 확보를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소개.

강 후보는 "남구민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을 물었다니 예산 확보(62%)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입법활동(16%), 정당활동(1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누가 지역 발전을 이끌 후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이라고 분석.

